

李 箱 文學에서 「12 월 12 일」이 지니는 意味

박 해 숙

<目 次>	
I. 序 論	2. 사 건
1. 李箱 문학이 지니는 문제점	3. 인 물
2. 「12 월 12 일」이 고찰될 필요성	4. 배 경
II. 本 論	5. theme
1. 첫 點	III. 結 論

I. 序 論

1. 李箱文學이 지니는 문제점

李箱은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어온 작가이다. 李箱 研究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부분을 요약하면 첫째, genre의 문제¹⁾와 둘째, Realism의 문제²⁾, 셋째, 문체・표현면의 문제³⁾ 등이었다. genre의 문제란 李箱이 선택했던 詩・소설・수필 등의 genre가 어떤 소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의 문제이며, Realism의 문제란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체로, 李箱이 당대 사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의 문체와 함께 당대사회를 어떻게 드러내었는가의 문제이다.

李箱은 정신분석학적⁴⁾・수학적⁵⁾・심리학적⁶⁾ 측면을 비롯하여 여러 관점에서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 분석은 「날개」를 비롯한 몇 작품과 李箱의 生活史⁷⁾와 episode를 통한 작가론⁸⁾에 치중되었다. 그러므로 그 결

1) 김기림, “현대시의 발전—스타일리스트의 예”, 조선일보, 1934, 7. 12~7. 22.

2) 최재서, “미연리주의 심화와 확대”, 조선일보, 1936, 10. 31.

3) 이이랑, “비유법논고”, 문학예술, 1956, 12.

4) 김종은, “이상의 정신 세계”, 심상, 1975, 3.

5) 권용술, “이상 문학에 있어서의 수학”, 신동아, 1973, 2.

6) 정귀영, “이상 문학의 초의식 심리학”, 월대문학, 1973, 7~9.

7) 김구용, “대문에 도달한 길”, 현대문학, 1962, 8.

8) 정병환, “부정과 생성”, 한국인과 문학사상, 1964.

이보영, “이상재론”, 창작과 비평, 1968, 겨울.

론도 李箱 작품 전체를 포괄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 위에 본고의 목적은 두어진다.

2. 「12월 12일」이 고찰될 필요성

작가론만이 많고 작품론이 부족한 李箱 研究 상태에서 李箱의 처녀작인 「12월 12일」을 독립된 한 작품으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李箱을 이해하는 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Ⅱ. 本 論

1. 說 點

「12월 12일」은 1930년 2월부터 7월까지 총독부 기관지인 「조선」에 발표된 중편소설로 李箱의 처녀작⁹⁾이다.

이 작품은 3개의 액자(frame·틀)를 거쳐 시작한다. 첫번째 틀은 작가의 말¹⁰⁾이며, 두 번째 틀은 작품 주인공인 <나>¹¹⁾의 말로 주인공의 입장과 화자인 나의 입장을 분리시키고 있다. 두 번째 틀의 나는 첫번째 틀의 작가와 같은 거리에 있으며 같은 시점이다. 세 번째 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시점이 혼란되며 본격적인 사건의 진행부이다. 이 부분은 1·2·3·4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1은 사건의 내용을 암시하는 서두이며 2는 X의 인간조건이 변화하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X는 생물적인 수준에서 정신적인 수준으로, 수동적인 단계에서 능동적인 단계로 변해 간다. 그리고 X는 T와 업에 대해서 쓴 부분으로 다음 단계에 올 자각되고 성숙된 X와의 갈등을 위해 T와 업의 성격을 제시하는 부분이며, 4는 X를 중심으로 모든 갈등이 집약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시점은 1·2·3·4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된다. 그렇지만 1에서 전지적 작가는 인물의 심리에까지 시야를 넓힌 것이 아니라 인물의 외부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사건의 원인을 인물의 외부에서 찾고 있다. 2는 X가 M에게 보내는 편지로 엮여졌으며 1인칭 시점이다(사건의 원인이 나에 의해 설명되면서, 나의 개별적이며 심리적인 이유가 사전에 개입), 3은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

9) 지은이가 李箱이라고 밝혀져 있다.

10) 조선, 5월호, 서울, 1930, 5, p.82.

11) 「이 하잘것 없는 젊은 할 편을 이 어그리진 인간법칙을 「그」라는 인격에 붙여이 서……」

이지만 4는 X에게 보이는 것과 X의 심리만이 주로 묘사되고 있으므로 작가의 시점이 X의 시점과 밀착되고, 정밀하지는 않지만 3인칭시점(시점의 국화)처럼 느껴진다. 이 작품에서 시점이 엇갈리어 나타나는 것은 李箱이 자신을 관찰하는 위치가 변했기 때문이다. 작품의 서두에서 작가와 작품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는 없어지고 작가의 관점이자 주인공의 관점이 된 것이다. 여기서 4의 초반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시점이 닮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먼 상태이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전지적 작가가 하는 얘기는 X의 심리묘사와 X의 눈에 보이는 사실 뿐이다. 그러나 X가 죽자 시점은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환원됐다.¹²⁾ 갈등의 주체인 작가는 3인칭 시점으로 갈등을 객관화시키려고 했으나 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은 상태에서 얘기를 진행한 것이 되어버렸다. 사건 밖에서 얘기를 진행시키는 내가 바로 <그=X>로 나타나는 주인공이며 또 작가이므로 갈등이 집약된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서두에 주어졌던 3개의 틀이 부서져 버리고 갈등이 해결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갈등이 가장 심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작품이 끝난다. 이것은 李箱이 작품에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문제를 해결할 vision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사 건

「12월 12일」은 한 인간의 내적 성장과 삶의 세부적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인간 외부의 객관적 상황과 개인이 지닌 한계로 인해 패배하는 얘기를 다룬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story의 진행이 일치하는 순차적 구성법을 취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배경이 조선—일본—조선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단순히 사건의 배경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깊이까지도 변한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성격이 외면적인 것에서 내면적인 것으로 변한 것이다.

<외면적 사건>

- 1) 첫번째 단락
 - 아내의 죽음
 - ↓
 - 아들의 죽음
 - ↓
 - 일본으로 감(12월 12일)

<내면적 사건>

12) X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것이다.

2) 두번째 단락

- 어머니의 죽음
- 노동—술·도박
- 명고육에서 요리장을 함
- 친구의 죽음
- 트럭사고
- 유산상속
- 귀국(12월 12일)

—육체적인 독립

경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 병원 설립 문제

◦ M과 T의 갈등

⇒ ◦ T와 X의 갈등

◦ X와 업과 C의 갈등

◦ 업과 X의 갈등

◦ 아내에 대한 잠재된 생각

◦ C의 애인에 대한 기억

◦ 명고육에서의 사건

- 업의 죽음

⇒ { ◦ C 떠남

{ ◦ 삶에 대한 X의 삶의 회의

- T의 방화

X의 죽음(12월 12일)

아기의 울음(해결이 없는 윤회)

첫 번째 단락은 조선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인물과 사건이 인과 관계에 의해 짜였다고 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어진 것이고,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도 외부적인 것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그 양상이 달라진다. 어머니의 죽음은 X가 생물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육체적인 독립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무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단락의 사건들은 거의 인과 관계를 지니지 않고 개개의 episode가 나열되어 X가 변하는 원인이 된다. 처음에 X는 의식주의 해결에만 관심을 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삶을 자각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수동적인 자세로 삶을 수용하는 것이다. 술과 도박에 자신을 탕진하는 사람들을 보고 삶에는 그런 향락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친구의 우발적인 죽음을 보고는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외적 원인에 의한 불행을 실감한다. 이것은 미숙하지만 자아를 각성하는 단계이며, 생은 의의있게 살고 싶다는 의식이 생기고 생의 불합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지만 아직 삶을 능

동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 이런 심리 상태 아래에서 트럭사고가 나며 X는 삶과 죽음 중에서 삶을 선택한다. 그는 삶이 <단순히 부정된 生, 식도의 매달린 生>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맹목적이고 불합리한 신에 대한 최후의 복수는 <부정되려는 생을 즐기차게 살아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삶을 선택한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급격하게 전환되는데 단순히 肉의 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외부와 내부, 그러니까 삶의 조건과 인간의 조건이 서로 간섭하고 알력을 일으키면서 사건은 전개되어 나간다. X는 삶과 죽음 앞에서 그의 삶 전부를 돌이켜 본 후 삶을 다시 택했지만 그는 절름발이가 된다. 이것은 X가 살아야 할 삶의 차원이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선택할 권리가 없는 삶을 선택한 댓가이다. 트럭사고 후 그는 앓아 눕는데 발병은 그의 정신적 변화를 완성하는 단계이며, 그 이후 그는 삶을 자각한 존재로서 그의 삶은 외면적인 단계에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삶의 단계로 전환한다.

그리고 X는 친구에게서 유산을 상속받는다. 이로 인해 X는 삶을 神과 연관된 입장에서 깨닫고, X의 삶은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단계로 전환한다. 즉 X가 조산을 떠난 원인인 가난을 청산함으로써 객관적이고도 외면적인 어려움을 X의 삶에서 제거시키기 위해서였다. 즉 일본에서의 생활은 X의 인간 조건을 바꾸는 계기였다.

첫단락이 아무 자각도 없는 인간의 인간의적 상황의 흐름뿐이라면 두번째 단락은 인간외적 상황과 인간내적 갈등이 결합하여 X를 변화시키는 부분이며, 세번째 단락은 변화된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얘기로 능동적으로 삶을 수용하려는 인간의 내적 갈등이 위주가 되어 사건이 전개된다. 이 부분에서의 외부적 사건은 사건의 중심이 아니며 인물의 심리적인 변화가 내부적인 사건을 형성한다. 즉 첫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외부에서 사건이 진행되며, 두번째 단락에서는 내적 사건과 외적 사건이 병행하여 외면적 사건이 내적인 변화를 준비할 뿐이지만, 세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내적 갈등이 사건의 진행 원인이 된다. 즉 각 단계마다 인물의 성숙도와 문제의식이 달라진다.

3. 인 물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X, 동생 T, 조카 업, 친구 M·C 등이다. 이 중에서 첫 단락에 등장하는 인물은 X·T·M이지만 성격을 지니고 사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서 사건의 주체는 가난이라는 객관적 상황이다. T·X·M 모두 가난이 만드는 사건의 주변 인물일 뿐이

다. 그러나 두번째 단락에서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도 X의 주변 인물들은 여전히 사건의 소도구에 불과하지만 X는 느끼고 고민하는 인물로 변해간다. 그는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혐오하기도 하며 친구의 죽음 앞에서는 분노하기도 한다, 그는 이런 사건들과 트러사고를 통해 삶에 대해 인식해 간다. X는 첫단락, 두번째 단락을 거침에 따라 점점 형체가 뚜렷해지고 자신의 욕구를 가진 모습으로 세번째 단락에 등장하며, M과 T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번째 단락에서 가장 흥미있는 인물은 조카 업이다. 업은 갈등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지니고 있다. 가난이라는 인간외적 문제에서 인간 사이의 고통·이해 불가능이라는 인간 내적 문제로 사건의 갈등이 바뀌는 것은 X의 성격변화와 유산 상속으로 가난이라는 객관적 어려움을 제거했기 때문이지만, 전환의 매체는 업이다. 업과 M의 알력이 T와 M의 알력으로 번지며 거기에 병원 설립이라는 문제가 개입됨으로 잠재되었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잠재되었던 X와 업의 갈등은 C의 등장으로 구체화되며, 업의 죽음과 T의 방화, 그리고 X의 죽음이라는 절탈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인물이 성격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고착된 관념으로 드러남은 갈등 자체가 형상화되지 못하고 관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 작품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외모를 지니지 않음에 비해 업이는 외모를 지니고 있다. 화려한 용모와 뛰어난 재능으로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업은 성장한다. 그러나 그는 방자하고 교만하며 X와 대조적인 인물로 드러난다. X가 의학을 공부했음에 비해 업은 음악을 하고자 하며, X는 삶에 능동적으로 부딪혀 세계와 화합하고자 하나 업은 세계가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음을 원망한다. 즉 X는 관념적이지만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비해 업은 유미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C는 李箱의 작품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자신의 갈등을 지닌 유일한 인물이며 X나 업의 대상으로만 나타나는 피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하고 고민하는 살아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X에게 문제의 발단이었던 죽은 아내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죽은 아들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기를 남겨줌으로 X의 상태를 원점으로 환원시키는 구실을 한다.

세번째 단락에서는 인물들의 욕구도 명확해지지만 그것보다도 인물들 상호간의 관계가 달라진다. 첫번째 단락에서는 X와 T, X와 M의 사이에 가난이라는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화합하고 있다. 그러나 세번째 단락에서는 가난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는 끊임없는 알력이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알력이 가난이

라는 구체적 사실보다는 원초적인 그림 상태를 연결할 수 없는 「서브의 이해 불가능」에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의 공동체 혹은 공동의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없다.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혼자 고통받을 뿐이다.

4. 배 경

「12월 12일」의 배경은 조선—일본—조선으로 이동되는 장소와 神이라든가 인간의 규범과 같은 인간외부의 조건과 상반되는 개인의 생활의지를 드러내는 내면적 공간으로 양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시대라든가 세부적인 장소는 무시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구체적인 갈등이 아니라 피상적인 갈등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즉 X가 갈등하는 문제는 가난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생의 목적이라든가 의의와 같은 관념적인 사실이다. 첫단락의 배경은 조선이며 X의 의식은 미숙한 단편에 있다. 그러나 두번째 단락은 첫단락과는 달리 위축되었던 개인의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자아가 세계에 대해 대립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으로서만 존재하고, 사건은 개인의 자아와 무관하게 분리되어 있으므로 인과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episode로만 있을 뿐이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아는 사건 속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밖에서, X의 内省에 의해 변화할 뿐이다. 그리고 세번째 단락에는 첫단락, 두번째 단락을 거침으로 충분히 성숙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축이 없는 X가 등장한다. 여기서 X는 세계의 도전에 충분히 응전할 수 있는 성숙된 자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세번째 단락에 있는 것은 X의 비대해진 관념 뿐이다. X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과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사건과 환경이 모두 X의 관념 속에 흡수되었다. 이것은 자아와 세계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균형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월 12일」에서 배경의 역할은 축소되고 배경은 X의 관념이 포착한 작은 부분에 머물게 되었다.

5. theme

「12월 12일」의 theme는 한 인간이 지닌 살고자 하는 의지이다. X로 표현되는 이 인물은 서두에 제시된 작가의 말과 액자형의 도입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화자이면서 작품의 중심인물이다. 그런데 李箱은 작가와 작품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 3개의 액자를 통해 사건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또 사건을 3단락으로 나누어 X의 갈등을 구분했다. 그러므로 X의 갈등 내용을 좀 더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단락은 자

아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두번째 단락은 자아가 작성되고 X가 지닌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이 사라지고, 극히 의욕적인 단계로 세번째 단락이 시작되도록 해준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숙된 자아인 X는 더 심각한 갈등에 부딪히며 결국 스스로 죽고 만다. 여기서 李箱은 X의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X의 삶에 단계를 지었지만 결국 도달한 결론은 세계와 화합할수 없는 개인일 뿐이다.

그리고 또 X의 죽음 다음에 神이 그 죽음의 원인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李箱의 문제 의식이 감상적이며 또 막에 부딪혔음을 뜻한다. 더구나 「12월 12일」에서 X의 자아에 대립하는 세계는 구체적인 형상이 없다. 단지 있는 것은 X의 관념 뿐이다. 인물도 사건도 배경도 모두 X의 관념 속에 흡수되어서 드러난다 그 이유는 李箱에게 당대의 현실을 구체화할 객관적 Realism의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미 삶의 논리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삶을 위한 객관적인 도덕과 규범이 부서진 시기에 객관적인 상황이란 있을 수 없었다.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리된 개인의 불안한 의식 뿐이었다. 그래서 「12월 12일」은 객관성을 잃고 인물·사건·배경 모든 것이 X의 관념 속으로 흡수되었다. 남은 것은 X의 theme 뿐이다.

Ⅲ.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 「12월 12일」은 李箱의 다른 소설과는 달리

① 그 표현면에 있어서 wit라든가 paradox가 없다.

② 갈등의 매개물 혹은 대상이 女子로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든가 인간관계 등 피상적인 상황에서 神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있다. 즉 갈등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했다.

③ 흔히 李箱 소설에서 지적되는 사소설 혹은 신변소설적인 요소와는 거리가 있다. 즉 李箱의 구체적인 일상이나 episode하고는 무관하다. 사소설 이타기보다는 관념소설쪽에 더 가깝다.

④ 李箱의 다른 소설에서는 사건이 약화되어 있음에 비해 「12월 12일」은 사건을 통해 갈등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李箱은 「12월 12일」에서 인물과 사건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소설 양식을 고수하고자 했으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전통적인 소설 양식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것은 「12월 12일」이 지닌 작품상의 결함일 뿐 아니라 작가 李箱의 한계이다.

① 話者인 「나=X」의 죽음(이것으로 인해 「12월 12일은 죽은 사람이 애기한 사건이 되어 버렸다.」)

② 싯점의 혼란

③ 문제의 해결을 神의 觀點에 미루어 두었다.

①, ②, ③ 이 세 가지 사실은 李箱이 엄정한 客觀성을 지니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당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vision 을 지니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④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인물과 사건이 사라지고 X의 觀念만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났다.

④의 사실은 李箱이 客觀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생긴 결과이다. 사람들 사이의 공동경험의 축소와 공유경험의 붕괴 그리고 경험의 전달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자 客觀성을 버리고 주관 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위의 이유들에서 李箱이 택할 수 있는 Realism 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李箱은 공동경험의 붕괴로 사실주의적 방법이 Realism 을 옹호할 수 없음을 알고 사실주의의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의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戲畵를 택했다. 그것이 「12월 12일」을 비롯하여 초기 몇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에서 드러나는 「부정한 여자」의 모형이다. 「부정한 여자」는 李箱에게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對自的 存在의 입구였다.

또 공동경험에 대한 불신이 생기자 공동체를 연결하는 언어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李箱의 소설에 드러나는 wit 와 paradox 그리고 비문법적인 요소도 그런 각도에서 이해 가능한 것이다.

「12월 12일」은 wit 와 paradox 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李箱 문학의 기반을 보여 주고 있다. 李箱이 전통적인 소설 양식을 고수하고자 했던 점과 함께 李箱이 전통적인 소설 양식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소설의 사건과 story · 인물을 지탱하는 바탕인 客觀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